

01월 0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01월 0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다우 9,000 탈환 [다우: 9,034.69pt (+ 2.94%)]	악화된 경기지표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저가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음. 국제유가가 지난 연말에 이어 강세를 지속, 에너지주도 지수상승의 견인차가 되었음.
유가, 잠시 '주춤' 후 상승 재개 [WTI: \$46.34 (+ \$1.7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 여파로 국제유가가 반등을 지속했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이 7일째 이어지면서 중동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공급 불안감을 가중시켰음.
제조업 경기 예상보다 부진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예상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는 지난해 12월 제조업지수가 전달 36.2에서 32.4로 하락했다고 밝혔음. 이는 1980년 이후 최저치이자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임.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는 35.4였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35.7이었음.
경상수지 흑자전환..달러수급 '숨통'	올들어 경상수지는 적자기조를 이어오다 지난 10월과 11월 두달 연속 흑자를 보였음. 12월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상당규모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높음. 이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 나가는 달러보다 들어오는 달러가 많은 만큼 달러 유동성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외환당국이 공급해줘야 할 필요성도 감소해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 줄어들 것.
英 '그린 뉴딜'로 불황 뚫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 정책'과 '디지털 광대역(브로드밴드)' 제안. 브라운 총리는 4일 영국 '가디언' 일요판인 '옵저버'와의 인터뷰에서 '1930년 미국의 뉴딜정책'을 더욱 현대적인 형태로 탈바꿈시켜 영국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밝힘.
中 제조업 경기침체 본격화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제조업이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 중국 제조업의 현황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에 최근 5개월 사이 잇따라 경기침체를 나타내는 '빨간불'이 켜지면서 중국 경기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
BOJ총재 "엔고 막기 위해 여러 조치 고려"	일본은행(BOJ) 총재가 "수출 주도의 일본 경제를 위협하는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 통화정책을 포함,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

제목	주요 내용
백화점 빅3 “불황에도 실적 괜찮았네”	롯데·현대·신세계 등 국내 백화점 `빅3`의 지난해 매출실적이 전년에 비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4~13%대의 매출 신장률을 하여 롯데백화점 7.5%, 현대백화점 4.3%, 신세계 13%의 신장률을 보임.
日, 명품은 저리가라.. 실속형 소비 지향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경기 불황으로 호주머니가 얇아진 일본인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음. 새해 첫 대목이었던 '후쿠부쿠로' 경쟁에서 매년 장사진을 이루던 브랜드 매장은 한산한 반면 식료품이나 내의 등 실용성이 강한 매장만 소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전함.
금융업 올해 마이너스 성장..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국내 금융기업 18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금융산업 전망` 조사결과, 올해 금융산업은 -6.7%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업종별로 `은행업` -7.1%, `증권업` -8.2%, `카드업` -5.9%, `보험업` -2.1%로 나타났다 금융기업들은 내년 금융환경을 둘러싼 불안요인으로 `실물경기침체의 장기화`(32.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글로벌 신용경색 지속`(32.0%), `PF부실규모 확대`(16.2%), `가계대출 불안심화`(12.8%) 등을 꼽음.
외국계 증권사들 `기준금리 인하` 균불 지핀다	외국계 증권사들이 `쇼크` 수준에 가까운 국내 경제지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번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50bp 정도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외국계들의 `균불떼기`에 한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며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최근 수출과 산업생산 지표를 보고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과 마이너스 생산을 기록할 것이라며 또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음.
9월법인 결산실적 `태반이 적자`	환율상승과 원자재가격 인상 등 여파로 9월결산법인들의 지난해 실적이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조사대상 11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5개사는 적자를 보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